금호타이어 매각협상 재개…난제 수두룩

산은-中 더블스타, 5개월내 미 계약시 박삼구 우선권 부활

상표권 사용 쟁점…정부 인허가, 정치권·노조 반발도 걸림돌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와 협상을 재개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전(戰)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서 더블스타가 승기를 잡은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협상이 쉽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고, 더블스타는 최종 인수자로서 조속한 거래 종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할 예정이다. 더블스타측은 이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금호타이어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는 물론 고객과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최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최종 인수 협상이 시작돼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지만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더블스타는 이번 협상에서 ▲상표권 사용문제 ▲채무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 등의 난제를 풀어야 한다.

매각절차가 재개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5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한다. 박 회장 입장에서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번 셈이다. 해당 기간 내 매매계약이 종결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금호라는 상표권이다. 이를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어 상표권 사용 여부는 박 회장의 손에 달렸다. 특히 금호산업은 최근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면서 "계약 기간에 해지 또는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문제는 상표권 문제에 비해 무난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채권은 모두 2조2000억원 가량으로 이 중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1조3000억원이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만큼 선결 요건의 하나인 만기 연장에도 무난하게 합의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인허가 부분에서는 방산 부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 기업이 방산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문이 금호타이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방산 부문 매각이 불가능하더라도 더블스타 입장에서는 계약을 깰 명분이 적다.

대선주자 등 정치권과 지역에서의 반대도 쟁점이다. 지난 24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광주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만나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넘어가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조는 "차기 정부에서 타이어산업과 연동해 매각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는 5월 새 정권이 들어서는 점도 금호타이어의 매각 절차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대리점주 60여명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면 금호타이어 제품은 소비자 신뢰를 잃어 전국 1500개 대리점은 심각한 생존권 위기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내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 대리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전KPS, 국내 기업 첫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한전KPS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한전KPS는 24일 빛가람혁신도시 본사 5층 혁신홀에서 한전KPS 정의헌 사장과 서지국 상임감사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김장섭 KSR인증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공정경쟁에 대한 실천적 국제표준이다. 한전KPS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정의헌 사장은 "한전KPS는 그동안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선진 감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인증서 획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청렴 공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KPS는 인증 획득을 위해 회사의 잠재적인 부패 영향 리스크를 발췌하고 국내 선진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화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매뉴얼을 개발했다.

한편, 한전KPS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성일이노텍·지오씨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 선정

연구비·해외마케팅 등 지원

광주·전남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25일 지역 명품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주)성일이노텍과 지오씨(주)가 중소기업청 주관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 300은 중소기업청이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 (주)오이솔루션, 2016년 남도금형(주)이 선정됐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400억~1조원, 직간접 수출 비중 20% 이상, 3년 평균 연구개발(R&D) 투자율 2% 이상,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인 기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성일이노텍(대표 임민자)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가전제품 내·외장재 스크린 인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터키, 인도 등의 수출 실적으로 1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오씨(주)(대표 박인철)는 2001년 설립된 광케이블, 광부품 및 광센서 전문 제조업체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광케이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을 연간 15억원(2~5년) 이내에서 지원하고 특히 전략수립을 의무화해 과제당 80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은 연간 7500만원(최대 5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96.85 (+23.11)	↓ 금리 (국고채 3년) 1.68% (-0.02)
↑ 코스닥 632.57 (+5.95)	↓ 환율 (USD) 1125.40원 (-4.50)

광주은행 대학생 SNS 홍보대사 모집

다음달 12일까지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학생 SNS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대학생 SNS홍보대사는 광주·전남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중인 2~3학년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2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주은행의 브랜드를 온라인과 SNS컨텐츠를 활용해 홍보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행사와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광주은행의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한다.

접수는 26일부터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광주은행 대학생 SNS홍보대사들은 6월초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을 지원 받으며 활동 우수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재호기자 lion@

삼성전자 가전 브랜드 美 시장 점유율 1위

매출액 기준 19.2% 세탁기·냉장고 등 강세…4년 연속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세계 최대 가전 시장인 미국에서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이룬 쾌거다.

25일 시장조사기관 트랙라인(Traqline)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미국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점유율 19.2%로 가전 브랜드 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4.5%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트랙라인은 냉장고, 세탁기,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 세척기 등 미국 내 주요 가전을 합산,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을 분기 단위로 발표한다.

삼성전자는 작년 2분기 점유율 16.7%로 브랜드 1위에 오른 이후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며 자리를 지켰다. 연간으로도 작년에 점유율 17.3%를 기록, 1위에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세탁기, 냉장고가 작년에 이어 1위였다.

1분기 세탁기 점유율은 19.7%였다. 작년에 출시한 애드워시의 인기에 힘입어 3분기에 처음 1위에 오른 이후 올해 초 출시된 플렉스워시가 힘을 보탰다. 특히 드럼세탁기는 작년 1분기에 비해 5.9%포인트 증가한 27.1% 점유율로 3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냉장고는 점유율 23.0%를 기록했다. 특히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점유율 34.0%로 32분기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연간으로는 점유율 30.8%로 작년에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양문형 냉장고 역시 점유율 22.3%로 4분기 연속 1위를 이어갔다. 프리미엄 냉장고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2500달러 이상의 프렌치도어 냉장고와 2000달러 이상의 양문형 냉장고가 각각 37.0%, 36.4%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조리기기 부문에서도 오븐과 전자레인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븐은 작년 1분기보다 4.6%포인트 성장한 18.2%를, 전자레인지는 4.9%포인트 성장한 13.5%로 2위를 차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